



# 의회 서구의회보

SEOGU DISTRICT COUNCIL

Vol.45 2017



# 미역귀

初弦 성영희

미역은 귀로 산다  
바위를 파고 듣는 미역줄기들  
견내랑 세찬 물길에 소용돌이로 붙어살다가  
12첩 반상에 진수(珍羞)로 올려 졌다고 했던가  
깜깜한 청력으로도 파도처럼 일어서는 돌의 꽃  
귀로 자생하는 유연한 물살은  
해초들의 텃밭 아닐까

미역을 따고나면 바위는 한동안 난청을 앓는다  
돌의 포자인가,  
물의 갈기인가, 움켜쥔 귀를 놓으면  
어지러운 소리들은 수면 위로 올라와  
물결이 된다  
파도가 지날 때마다  
온몸으로 흘러 쓰는 해초들의 수중악보  
흘려 쓴 음표라고 함부로 고쳐 부르지 마라  
얇고 가느다란 음파로도 춤을 추는  
물의 하체다

저 깊은 곳으로부터 헤엄쳐 온 물의 후음이  
긴 파도를 펼치는 시간  
잠에서 깬 귀들이 쫑긋쫑긋 햇살을 읽는다

물결을 말리면 저런 모양이 될까  
햇살을 만나면 야멸치게 물의 뼈를 버리는  
바짝 마른 파도 한 뭉

2017 경인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초현 성영희

- 충남 태안 출생
- 2017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당선(미역귀)
- 2017년 대전일보 신춘문예 당선(페인트공)
- 2015년 농촌문학상 수상, 2014년 동서문학상 가
- 2011년~2015년 서울지하철스크린도어 선정
- 제10회 시흥문학상 우수상
- 2009년 부평 삶의 문학상 우수상
- 시마을동인, 동서문학 회원, 부&펜 동인
- 인천서구문화예술인회 회원, 청라문학 회원



# 서구의회보

SEOGU DISTRICT COUNCIL

## CONTENTS

- 02 의회 연혁
- 03 제7대 서구의회 개원 3주년 인터뷰
- 05 의원 현황
- 08 기고문
- 11 의정일기
- 17 의원 결의문
- 35 회기별 운영사항
- 39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49 의정 포토
- 59 의회 방청 안내
- 60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통 권 제 45호  
발 행 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발 행 일 2017년 10월  
발 행 인 의장 심우창  
편 집 인 서구의회 사무국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T.032-560-5850~60 F.032-560-2797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 복제를 금하며,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회보는 인터넷 ([www.seo.incheon.kr/family](http://www.seo.incheon.kr/family))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History 서구의회 연혁

---

1990. 12. 31. 지방자치법 개정

---

1991. 03. 26. 초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선거  
1991. 04. 15. 제1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21명)

---

1995. 01. 01. 인천직할시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개칭  
1995. 06. 27.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  
1995. 07. 11. 제2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24명)

---

1998. 06. 04.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998. 07. 07. 제3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13명)

---

2002. 06. 13.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02. 07. 08. 제4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14명)

---

2006. 05. 31.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06. 07. 04. 제5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14명)

---

2010. 06. 02.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10. 07. 07. 제6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14명)

---

2014. 06. 04.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14. 07. 07. 제7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개원 (의원정수 16명)

## 제7대 서구의회 개원 3주년 심우창 의장 인터뷰



**Q. 제7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소감과 앞으로의 비전은?**

**A.** 의장에 취임한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라는 직책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귀중하고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인가를 새삼 느끼게 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의 안정을 위해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다양한 소통 창구를 가동했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점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털어내며 운영의 묘를 찾겠습니다.

현재 서구의 정치 지형은 국회처럼 다당제 구조입니다.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간의 '협치'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주민, 집행부, 의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계획입니다. 아직 의회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남아 있어 의정활동의 열매를 맺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남은 임기 안에 7대 서구의회의 의

정활동 성과를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려드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자치의 최 일선에 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방만의 가치가 무엇인지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곳곳이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Q. 그동안 제7대 서구의회 의정활동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A.** 제7대 서구의회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지역 민원과 현안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조례·규칙 제·개정 319건, 예산안 처리 12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08건, 촉구·반대 결의안 9건, 청원 4건, 진정 11건을 처리하였고, 그 어느 때보다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많은 안전을 처

리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 했다고 자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침도 선박수리 조선단지조성 결사반대 결의안, 대체매립지조성 결사반대 결의안, 봉화초등학교 폐교 결사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서구의 회 의원 전체가 힘을 모아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구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강화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집행부와 의 소모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통채널을 강화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이 행복한 서구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으며,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Q. 서구의 시급한 현안사항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A. 우리 서구는 무한한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가진 역동적인 도시로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루원시티 개발 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등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7호선 청라연장사업과 제3연륙교 건설사업, 매립지문제 등 구민들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여러 사업들도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일단 만들어지고 나면 되돌리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구도심의 협소한 도로사정과 주차장 문제 같은 '잘못 단 첫 단추'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모든 현안에 매순간 긴장하며 사업초기부터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의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기 내 해결이 힘들어도 향후 해결을 위한 초석을 반드시 다지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4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인천 시민의 고통을 치유한다며 합의한 내용이 이행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직접적인 피해 지역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구는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주물단지 등 각종 환경위해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

기 위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세우고,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사업으로 서구의 미래 주인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유니세프에서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산적해 있는 서구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의 주된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고 하지만 이는 발전을 위한 견제이지 무조건적인 견제가 아닌 만큼 의회차원에서 협력할 것은 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울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구민의 삶의 여건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민의 뜻이 구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 Q.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은 구민 여러분을 대표하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사명감을 가슴에 안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50만 구민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성숙한 서구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의 중심도시, 인천 서구”를 만들고, 구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산적해 있는 서구의 현안사항을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파수꾼으로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일

서구의회 의장 심우창

## 의 장



**심우창**  
검단 1,2,3,4,5동

## 부인장



**김용인**  
연희동,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창**  
가좌 1,2,3,4동



**부위원장**  
**최영숙**  
비례대표



**위원**  
**박삼순**  
검암경서동,  
청라 1,2,3동



**위원**  
**김윤순**  
연희동,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위원**  
**전옥자**  
비례대표

의원 수 : 5명

소관사항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 기획중무위원회



위원장

이 의 상

검단 1,2,3,4,5동



부위원장

전 재 운

검암경서동,  
청라 1,2,3동



위 원

박 삼 숙

검암경서동,  
청라 1,2,3동



위 원

김 용 인

연희동,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위 원

이 용 창

가좌 1,2,3,4동



위 원

최 영 숙

비례대표

의 원 수 : 6명

소관사항 :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총무국,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규술**  
연희동,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부위원장**  
**전옥자**  
비례대표



**위원**  
**이종민**  
검단 1,2,3,4,5동



**위원**  
**천성주**  
검단 1,2,3,4,5동



**위원**  
**김윤순**  
연희동,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위원**  
**박형렬**  
석남 1,2,3동



**위원**  
**문순석**  
가좌 1,2,3,4동

의원 수 : 7명

소관사항 : 문화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내로남불의 시대



서구의회 의장  
심우창

“담뱃세를 인상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반대하느냐. 그것도 참 아이러니 낄한 문제다.” 최근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힌 대여(與) 비판 발언이다. 그들이 인하를 추진하는 세금 2천원은, 증세 외 국민건강증진 효과는 없다는 전문가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밀어붙였던 담뱃값 인상 금액이었다. 자기부정의 정점을 찍는 이 발언에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치부가 모두 담겨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고질병이다.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신한국당 박희태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 여자관계는 로맨스고 남의 여자관계는 스캔들’이라고 야당을 성토했던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였다.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는 ‘내로남불’이라는 주류(主流)문화가 정치권 내에서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내로남불’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이 지난 후 서로 같은 말을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과, 입장이 바뀌면 화살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 돌아온다는 것이다. 후보자검증, 특히 정권교체 이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내로남불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펼쳐 보인다.

여야의 공수(攻守)가 뒤바뀌면서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과거사 파헤치기’에 골몰하는 의원들로 청문회장이 가득 채워지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웃픈’ 일들이 벌어진다 논문 표절을 지적하며 후보사퇴를 주장하는 의원이 누리꾼에 의해 논문 표절 의혹이 부상하고, 포퓰리즘 정치라며 즐겨 성토했오다 담뱃세

인하 주장으로 스스로 포퓰리즘 탓에 갇힌다거나, 투기 의혹을 이실직고하라고 성토했던 의원이 과거 후보자 등록에서의 거주지 따로, 강남의 모 아파트라는 실제 거주지 따로라는 것이 밝혀지는 등 내로남불의 예를 모으면 A4용지 수십 장은 될 듯하다. 이런 특이한 문화는, 지방의회로 내려오면 굴이 탱자가 되듯 변질된다. 특히, 당 대 당이 아닌 같은 당내에선 ‘질시’와 ‘매도’라는 색채가 가미되어 같은 당 소속 의원을 비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즉, ‘나는 good이고 남은 bad로 보여져야만 한다’는 일그러진 결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지역민에게 능력을 인정받는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을 향해 비방하거나 모함하여 명예를 실추시키지만 정작 조례 및 정책에는 관심 없다는 듯 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태업이나 개인사업체와 지역구 관리만 한다거나, 당 충성도가 약하다며 상대를 당 간부에게 음해하지만 정작 당 이미지를 훼손하는 추태로 지역구민의 혀를 차게 하는 일들을 일삼는다. ‘매도, 질시’의 내로남불 문화 속에 최소한의 정치 도의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 모든 건 정치의 우선순위를 ‘밥그릇 싸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한자성어도 아닌 불쾌한 의미를 담은 네 글자조합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부족을 남에게 전가 시키려는 어두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지역사회의 ‘집단지성’에 있음을 밝히고 싶다. 정치꾼이 아닌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냉철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일반화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원을 향해 늘 준엄한 시선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출처: 경인일보

## 구도심과 신도시 함께 발전해야



서구의회 부의장  
김용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은 구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도시균형발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꿈의 도시이다.

이런 인천의 중심에 있으며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서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구도심 재생 사업의 대표적인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10년이 지나오는 동안 많은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과 마음의 고통을 안겨줬다.

그러나, 다행히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사업정상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착공하게 됐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 도로가 된다는 발표와 맞추어 루원시티 조성사업도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루원시티는 신도시인 경제자유구역 청라의 근접지역으로 장기적으로는 청라와 더불어 발전해 나갈 것이다. 또 루원시티는 인천 서구의 핵심 지역이며 미래의 거점인 동시에 여지껏 선례가 없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 구도심 재생사업의 첫 모델이 될 것이다. 더불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대표적 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는 서구의 대표적 원도심인 가정동을 중심으로 석남동, 가좌동 지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며, 앞으로 인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형공사가 진행되기에 앞서 반드시 각인되어야 할 부분은 모든 공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장마 등 날씨와 관련해 약해진 지반, 노후된 상·하수도, 정화조 등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에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와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조성은 인천 서구가 대한민국 꿈의 도시로 부각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사업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출처 : 인천일보

## 청라국제도시 공촌천-심곡천 악취문제 심각하다



서구의회 의원  
박삼숙

인천광역시 서구의 야심찬 신도시 청라국제도시를 감싸고 있는 공촌천과 심곡천의 악취문제에 해소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청라국제도시 지역은 다른 신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특화시설을 포함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로 물의도시라는 콘셉트에 맞추어 건설한 도시이다. 중심부를 관통하는 커널웨이와 69만 제곱미터의 중앙호수공원은 국내 최대의 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물의도시라는 별칭에 맞는 특화시설에 비하여 청라국제도시를 감싸고 있는 자연하천인 공촌천과 심곡천의 수질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공촌천과 심곡천에 유입되는 물은 경서동을 포함한 검암 1,2지구에서 일일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 2만6천톤과 청라지구에서 일일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 3만9천톤을 공촌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막공법을 이용하여 정화한 뒤 자연형 하천인 공촌천과 심곡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공촌하수종말처리장은 검암경서 지역 2만6천톤 처리시설과 청라 지역 3만9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건설되어 일일 총 6만5천톤을 처리하고 있다.

이런 시설들로 공촌천과 심곡천에 각각 1만7천톤을, 커널웨이에 5천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정도인 8천에서 9천톤씩 밖에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 진 것이다. 적정량의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니 유속이 느려지고 적조현상과 조류가 발생하여 악취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심곡·공촌천 주변의 주거환경이 침해되면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고 집단 민원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방안이 시급한 현실이다.

심곡천의 악취제거를 위하여 LH공사에서 준설토 작업을 하고 있으나 하천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환경공단 공촌사업소에서는 다량의 처리수를 기업, 개발업체 등에 판매하다보니 정상적으로 하천용수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공급 계획대로 1일 각 하천마다 1만7천톤의 용수가 공급되어야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심곡·공촌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라국제도시가 속한 서구청 관계부서에서도 의지를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서울일보

## “젊은 패기, 추진력 100% 민원해결사”

“주민이 주인인 서구, 주민 위주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이용창 의원(가좌1·2·3·4동)은 올해 38살의 정치 신인이다. 2014년 새누리당 서구·강화갑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했다. 태권도 5단 유단자이자 경호원 출신답게 자신의 소신을 그대로 실현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고향이자 지역구인 서구 가좌동에서 그는 패기 넘치는 청년 의원으로 통한다. 3년 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받은 연습장에는 메모가 빈 칸 없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이용창 의원은 “지역 민원 가운데 단기적인 것들은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제도 등의 문제로 장기적인 사안들은 기록해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민원 노트’에는 민원 내용과 접수·현장방문 날짜, 해결 내용, 처리유무 등이 적혀있다.

이 의원은 “서구 가좌동은 원도심으로 제도권 밖에 있는 주민들이 많다”며 “기초생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자식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소외된 주민들에게 봉사·종교단체들과 연결해 쌀과 반찬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수년전 재개발 소문으로 부동산 투기가 난립하면서 세입자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목격했다. 외곽이 벗겨지거나 빗물이 새는 노후된 주택을 일일이 방문해 수리·보수도 도맡아 왔다. 가좌동 해결사로 불리는 그의 추진력은 ‘탁상행정 제로,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정신에서 나온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지 않고 동시 착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해 인천시로부터 확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신념대로 행동한다는 혁신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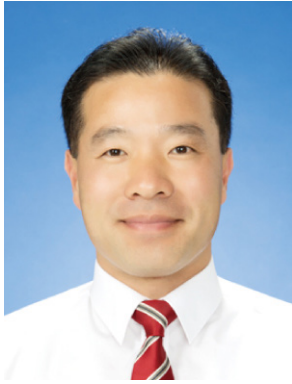
이 의원은 “주민들에게 바른정당의 정치색깔로 인식되기 보다는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남고 싶다. 부끄럽지 않은 구정활동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구의회 의원  
이용창

출처 : 중부일보

## “검단2신도시 무산...지역주민 상실감 커져”



서구의회 의원  
이의상

인천 서구의회 이의상(44·검단1·2·3·4·5동) 의원은 봉사를 넘어 희생정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자주 발견했다. 그는 누구보다 마음아파하며 작은 힘을 어두운 곳을 밝히는 데 보탬지만 개인 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정치계로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기초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지역 아동과 어르신들을 센터나 지역 단체, 사회 단체와 연결해 도움을 줬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서구 지역 내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맞춤형 지원 방향을 모색해왔다. 노후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좋은 면학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시설물도 재정비했다. 그의 노력의 결실로 급식소 하나 없던 학교에 급식소가 들어섰고, 구형 수세식 화장실에는 양변기가 설치됐다. 이 의원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검단지역 주민들을 위해 문화시설을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문화, 놀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위한 수련시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이 의원은 복지뿐 아니라 기반 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전체 계획 도로 가운데 경기도 구간은 이미 개통했으나 인천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며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출퇴근 극심한 정체를 빚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단신도시 2지구 개발사업과 스마트 시티 건설 등의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검단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대변했다. 신도시 개발계획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검단지역 주민들이 깊어지고 있다. 그는 사업이 진척되고 완전 개통된다면 시민 교통 편의가 개선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오직 주민만을 생각하는 의원’이라는 초심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끊어주고 해결해주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며 “주민 대표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설 틈 없이 발로 뛰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출처 : 중부일보

## “구의원, 정치인 아닌 해결사”

인천 서구의회 최규술(47·연희동, 가정 1·2·3동, 신현원창동) 의원은 듣직한 인물로 통한다. 서구가 나고 자란 고향은 아니지만 살고 있는 동네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며 시작한 지역 활동이 구의회 입성으로 이어졌다. 그는 구의원이란 정치가가 아닌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 ▲ ‘탱크’라 불리는 사나이

최 의원 별명은 ‘탱’다. 뭐든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고 해서 붙여졌다. 우직한 외모처럼 추진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구발전협의회 조직국장으로 시작으로 지역에 명함을 내민 그는 해병대 서구전우회, 라이온스클럽 등을 통해 지역 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 24년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서구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희망에서다. 2014년 구의원에 당선된 그는 구의회 활동은 정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구의회는 정치의 장이 아니라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곳이다”라며 “주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크고 작은 지역 현안을 구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구 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의원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구의원들에게는 공평하게 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며 “추진력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구의회 의원  
최 규 술

### ▲ 노인, 청소년을 위한 서구로

최 의원은 서구의회에서 줄곧 복지도시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도시복지위원장이다. 최 의원이 가장 관심 갖는 분야는 바로 노인, 보훈 분야다. 오늘날 발전한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것은 앞서 고생하신 분들 때문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는 “우리가 다양하게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히 대우 받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서구만큼은 제대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 4월에는 어르신들의 서구립 풍물단 가입 연령을 확대했다. 60세 이상에서 65세 이하로 범위를 넓혔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청소년 분야 역시 주목하고 있다. 그는 올해 서구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원 가입 조건을 확대했다. 가입조건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 의원은 현재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개최했던 주경기장 활용을 놓고 고민 중이다. 주경기장을 청소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영화도 보고, 공연도하는 그야말로 청소년 메카를 꿈꾸고 있다.

### ▲ 끊임없이 발로 뛰는 구의원

구의원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그는 요즘 너무 바쁘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서구지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도 그중 하나다. 최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로 일반화 사업 최대 수혜지역은 서구이지만 이는 9년 후에야 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됐던 서구에 관심들이 저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와 맞물려 바로 철거가 가능한 지역이 서구지만 인천시는 3단계로 나눠 사업을 계획 중인데다 서구가 마지막 사업지역으로 예정돼 있다. 최 의원은 이런 서구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위해 6월부터 촛불집회를 열고 동참할 계획이다. 그는 “크고 작은 사업이 해결 될 때마다 힘을 주신 주민들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

## “10년 지연된 원당대로 정상개통 보람”



서구의회 의원  
천성주

“주어진 시간과 역할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천성주 의원(50·검단1·2·3·4·5)이 앞으로 목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천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돼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선배, 동료 정치인들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다. 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구의원으로서 그의 소신은 단순명료하다. ‘기본에 충실하자’. 집행부가 외면한 일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의 소신이 빛을 발한 의정활동은 인천 서구 원당대로 839번길 일대 도로공사와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채용 문제를 바로잡은 일이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원당대로 도로 개설 공사가 10여년 넘게 개통을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일부 묘가 도로 계획 구역에 걸쳐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기념물인 김안정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1년여 동안 분묘이장 관계자들을 만나고 문화재 보존지역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문화재위원들을 설득했다. 그의 노력으로 도로는 정상 개통할 수 있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의 투명한 인사 채용에도 한몫했다. 천 의원은 공단 신규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뤄졌던 공단 신규 채용에 대해 지역사회 인맥과 청탁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의 지적에 서구는 공정한 직원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가 3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실추된 의회의 권위다. 집행부 자체 권한이 너무 많아 의회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들이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으로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긴장시킬 수 있도록 의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천지역 기초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과 서구를 홍보하는 역할도 작게나마 하고 싶다는 게 그의 바람이다. 그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연내착공 뿌듯해요

“의정활동과 가정살림을 병행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도움이 됐을 때, 구의원 하기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한 ‘슈퍼맨’이 돼야한다는 김윤순(48·연희동,가정1·2·3동,신현원창동)의원의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지역사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상공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폭 넓은 사회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입지를 다져왔다. 정치권에서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욕심에 발을 담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원직을 통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조례발의와 집행부 견제역할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손에 꼽는 결과물은 인천 서구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건립과 의약품 관리 관련 조례다. 교육센터는 서구가 발달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교육센터 내에는 교육실과 심리안정실, 정보화교육실, 직업훈련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센터 착공까지 김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줄곧 요구해왔다. 그는 “발달장애인과 그의 부모님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한 센터 건립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왔고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며 “센터가 차질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유효기간이 지나 변질·부패한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는 “생활 속 의약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별명은 ‘서구의 며느리’다. 구민을 시아버지처럼 받들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자칭타칭 만들어진 별명이다. 그의 별명처럼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초선의원으로 당찬 욕심을 가지고 달려왔다”며 “남은 임기까지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구의회 의원  
김윤순

출처 : 중부일보

## “원목창고로 인한 대규모 참사 일어날 수도”



서구의회 의원  
전 옥 자

최근 열린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옥자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 주택가 인근 야적장 원목방치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전옥자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최근 한진중공업의 인천 북항 야적장 부지 매각으로 원목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 인근 보세창고로 몰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직접 현장을 둘러 본 결과, 원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보세창고가 있었고 SK인천석유화학 저유시설과 거리가 100m도 채 되지 않았으며, 인근 시멘트공장이 추진 중인 가스저장시설 위치가 보세창고와 담장하나 사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내의 원목야적장 소유자인 한진중공업이 자금난을 이유로 부지를 분할해 매각하기로 결정해 국내 수입 원목의 60% 이상을 야적했던 부지가 주택가 깊숙이 파고들게 되어 버렸고 도로 곳곳이 패일 정도로 원목을 실은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목이 늘면서 외래 해충(미국선녀벌레)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민들은 원목창고로 인해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인천시와 서구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공원녹지과는 “원목야적장에 대한 점검 결과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일 8~10회 원목에 물을 뿌려 분진예방 및 자연발화로 발생 될 수 있는 화재예방과 감시요원 순찰을 통해 외부요인으로부터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일보

#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 도발 규탄 결의안

대표발의자 이의상 의원

발 의 자 심우창 의원, 이종석 의원, 이종민 의원, 천성주 의원, 전재운 의원, 박삼숙 의원, 김용인 의원, 김윤순 의원, 최규술 의원, 박형렬 의원, 이한중 의원, 문순석 의원, 이용창 의원, 전옥자 의원, 최영숙 의원

독도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해온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도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삼국시대 신라 지증마립간 13년 6월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한다.

또한 우산국이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실려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동쪽 바다의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을 언급하였고, 숙종실록 역시 2년 간격으로 사람을 보내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도록 명령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1900년 고종의 칙령 제41호에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바꾸고 그 관할 구역을 울릉도 전체와 죽도, 석도로 한다.”라는 내용을 국제적으로 분명히 밝힌바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독도 침탈을 위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는 등 역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역사왜곡은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명백한 주권침탈 행위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희롱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깊은 실망과 터져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고, 일본의 야욕을 묵과할 수 없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 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며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독도도발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은 지속적인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일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해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은 왜곡된 역사교육을 중단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취소하라!

2017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인천시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도계~마전)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이의상 의원

발 의 자 김윤순 의원, 이용창 의원, 전재운 의원, 최영숙 의원, 전옥자 의원, 김용인 의원, 최규술 의원, 박형렬 의원, 천성주 의원

인천시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도로 개설사업은 검단 마전동을 시작으로 김포와 일산을 연결하는 총 사업비 1,051억원, 총 길이 3.1 킬로미터 왕복 6차로의 국가지원지방도 개설사업이다.

2010년 11월 국토부에서 수립한 제3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본 사업은 인천 마전~김포 감정~일산대교~고양 송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노선으로 인근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계획된 도로 중 경기도 구간은 이미 개통하였으나 인천시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해 수 많은 차량들이 기존 도로로 우회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 극심한 정체를 빚는 등 인천 서북부와 김포를 이동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 구간인 대곡동과 마전동 지역이 검단신도시 2지구 개발 사업, 스마트시티 건설 등 각종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후 약 6년 여간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무산이 반복되며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체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검단지역 주민들이 떠안아 온 것이다.

다행히도 본 사업은 2016년 3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 값 1.12로 사업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해 8월 국토부에서 고시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중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이 신설 노선으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에서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시장 등이 직접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국비 2억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등 조속한 사업 추진 의사를 보여 검단지역을 비롯한 인천 서북부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의 인천 구간이 완료되어 완전히 개통된다면 인천·김포·일산을 연결하는 동서 간선도로망이 형성되어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제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6년 여간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 서북부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2024년 완공이 아닌 3년을 앞당겨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지체 없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검단일반산업단지 소방서 건립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이의상 의원

발 의 자 이의상 의원, 김용인 의원, 김윤순 의원, 문순석 의원, 전옥자 의원, 박형렬 의원, 최규술 의원, 이용창 의원, 심우창 의원, 최영숙 의원, 박삼숙 의원, 전재운 의원, 천성주 의원, 이종민 의원

인천시는 지역 내 무분별하게 산재돼 있던 공장지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검단신도시 및 인천지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확보와 인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해 서구 오류동 일대에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을 갖춘 약 220만㎡ 규모의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최근 2017년 3월 인천김포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검단일반산업단지는 인천항을 비롯해 인천북항 배후단지, 서구와 청라 일반산업단지, 김포하운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어 물류벨트가 구축됨으로써 허브산업단지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는 2020년 무렵에는 1,200개 업체가 입주하여 25,000명의 근로자가 상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검단지역의 총 인구는 약 16만 명으로 서구 전체 인구 중 약 31.8%가 검단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검단신도시 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검단지역에만 약 18만 3천명이 추가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검단일반산업단지 인근에 마땅한 소방서가 없어 산업단지 내 화재발생 시 오류지역대와 왕길동 검단119안전센터 단 2곳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검단지역 내에는 검단119안전센터와 월당119안전센터 2곳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이 책임지는 있는 주민 수는 약 16만명으로 1센터 당 약 8만 명에 달한다. 검단을 제외한 서구 지역에 총 6개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1센터 당 평균 5만 8천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에 검단지역에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소방서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산업단지의 특성상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반드시 전문소방서 건립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2016년에 서구에서 발생한 총 304건의 화재 중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9건으로 25.9%의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금속기계 및 기구, 화학공장 등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오류동에서 총 21건(22.3%)의 화재가 발생, 검단지역 내에서도 가장 높은 화재발생 비율을 기록하여 이에 대응할 전문소방서가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내에 기계 및 화학물질 등의 화재에 대비한 전문 소방서가 건립된다면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대형화재 발생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검단지역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보다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검단지역 내 소방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기계 및 화학물질 등의 화재에 대비한 전문 소방서를 즉각 건립하라.

하나, 급속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검단지역 내 화재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7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 일동

#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천성주 의원

발의자 심우창 의원, 이종석 의원, 이종민 의원, 이의상 의원, 전재운 의원, 박삼숙 의원, 김용인 의원, 김윤순 의원, 최규술 의원, 박형렬 의원, 이한중 의원, 문순석 의원, 이용창 의원, 전옥자 의원, 최영숙 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 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정부는 내 지역의 일까지도 우리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으로써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는 비교가 안될 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예산의 적정성 제고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지방정부간 서비스 경쟁을 통해 관선시대와

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선진의정을 통한 정의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립도는 74.2%에 불과하여 지방정부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지방정부의 수가 114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

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의회 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일동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지방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각급의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을 요구한다.

하나, 지난해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천성주 의원

발 의 자 전재운 의원, 이용창 의원, 심우창 의원, 최영숙 의원, 박삼숙 의원, 김윤순 의원, 전옥자 의원, 이의상 의원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 백석동, 오류동 그리고 김포시 양촌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이 86퍼센트, 경기도 김포시 관할이 14퍼센트로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최초 매립을 시작하여 2000년 제1매립장의 매립이 완료되었고 2016년말 매립종료 예정이던 제2매립장은 그 기한이 연장되어 계속해서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인천시 9개 군·구, 경기도 24개시 등 총 58개 기관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쓰레기를 생매립하는 방식의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만들어 놓았고 25년간 서구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더욱이 2016년까지 매립종료를 약속해 놓고 주민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하였고 2015년 6월 28일 매립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①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를 위해서 사용하며,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한다.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한다.

③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테마파크 조성, 검단 산업단지 환경사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교통확충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을 적극 협력한다.

④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의 합의 사항 중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 외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또한, 2016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편성된 가산금은 약 896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인천시는 이 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듯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배분하여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년동안 환경권, 재산권 등 피해는 고스란히 서구 주민이 보고 있음에도 지금껏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던 인천시가 매립종료를 불과 1년 6개월여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서구 주민과

는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립기한을 연장해주었고 그  
땀가는 고스란히 인천시가 챙기는 이러한 행정에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서구의회는 참으로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서구의 희망찬 미래와 구민  
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인천시는 서구의 환경권,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현재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편성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구민이 원하는 지원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서구민과 협의없이 이루어진 4자 협의체 합의안은 구민  
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재협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자** 전재운 의원

**발 의 자** 심우창 의원, 김용인 의원, 이의상 의원, 천성주 의원, 이종민 의원, 박삼숙 의원, 김윤순 의원, 최규술 의원, 박형렬 의원, 문순석 의원, 이용창 의원, 전옥자 의원, 최영숙 의원

지난 2월 20일 서울시에 서는 지하철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사전 타당성 용역을 내년 초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사업위치로 김포시와 고양시 두 곳을 명기하고 광역철도와 연계한 최적 노선 대안 및 정거장을 사업내용으로 명시하여 사실상 5호선의 연장과 광역철도망 편입을 공식화 하였다.



내에서 이전하는 것을 두고 타당성을 검토한 적이 있으나 이전수익 대비 6,000억원의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5호선 연장과 함께 차량기지를 경기도 쪽으로 이전하고 본래의 자리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된다면 수 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낼 수 있어 5호선 연장사업에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차량기지는 올림픽대로와 강서한강공원 쪽에 접해 있고 개화IC와 신행주대교와도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화동의 주요 주거지역과도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여 왔던 곳이다.

이에 우리 서구와 경기도 김포시의 주민들은 5호선 연장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인근지역 내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건의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단과 김포지역은 광역버스 이외에 서울로 연결되는 변변한 교통수단조차 없어 교통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특히, 검단은 현재 인구가 16만 여명에 이르고 앞으로 검단신도시 개발로 2023년까지 18만 3천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어 특단의 교통대책이 절실한 곳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앞서 2015년에 방화차량기지를 강서구

김포지역 또한 2035년까지 70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가 설계 중이라고 한다. 이같은 계획대로라면 2035년까지 검단과 김포

일대 인구는 100만 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교통대책이 절실해 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방화기지 이전은 5호선이 검단을 경유하여 김포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방사형 광역철도망과도 연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권 출퇴근을 30분대로 줄이겠다며 '수도권 광역대중교통정책 해결'을 최우선 순위로 공약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도권 그물망 급행 광역철도망 구축과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 도시철도 연장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방사형 광역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방화차량 기지 이전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교통망 계획과 맞물려 추진해야하며 오는 2026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단을 경유하여 김포로 이어지도록 5호선을 연장하면 인천지하철 1호선과도 연결 될 수 있어 대통령이 공약한 방사형 광역철도망 구축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교통망이 확정된다면 그 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검단과 김포지역은 서부 수도권의 신흥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며 수도권 주거환경 대책과 각종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5호선 연장이 강화지역까지 확대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과 교류도 가능케 될 것이다.

지하철 5호선이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되어 검단을 경유하여 김포시까지 연장된다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소요예산을 분담하게 되어 사업비 마련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검단을 경유한 김포시까지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22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인천 서북부지역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김윤순 의원

발 의 자 김유순 의원, 이의상 의원, 심우창 의원, 김용인 의원, 최규술 의원, 이용창 의원, 박삼숙 의원, 최영숙 의원, 박형렬 의원, 문순석 의원, 천성주 의원, 전옥자 의원, 이종민 의원, 전재운 의원

인구 300만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 운전면허시험장은 단 한 곳뿐이다. 이 운전면허시험장은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해 있어 면허시험장과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서구, 계양, 부평, 강화 등 서북부지역 주민들과 강화 주민들은 수 년째 이용불편을 호소해 오고 있다.



면허시험장을 증설한 서울과 부산 등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인천시의 경우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천시도 인구 300만이라는 위상에 합당하도록 제2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구와 부평, 계양, 김포, 고양, 강화라는 광대한 지역 사이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서구 주민은 남동구 고잔동까지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시 이동시간만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되고 원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까지 더하면 1건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나절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치한 서구의 지리적 여건과 현재 서구 인구가 51만명이지만 향후 2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구주민의 이용편의와 더 나아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2의 운전면허시험장은 인천 서북부지역, 특히 서구에 건립되어야 마땅하다.

인천시에서 유일한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들로 면허시험장은 항상 붐비기 때문에 민원인은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 담당 직원들 또한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인천시 인구증가와 더불어 앞으로 운전면허 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인근 백석동 212-20일원에 운전면허시험장과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조성 계획일 뿐 실현 될지 여부는 관과 민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실제 수요 증대에 발맞추어 시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운전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 각종 환경협오시설의 집중으로 환경피해를 감내하며 생활해 왔던 서구민들의 주거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서구민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줄여 생활편의

가 증진 되도록 제2의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은 하루 빨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유치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제2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서구에 유치되어 그동안 쓰레기매립지 인근에 살면서 고통받아온 서구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서북부지역 주민의 운전면허 민원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을 위해 제2의 운전면허시험장을 건립하라!

하나. 제2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유치하라!

하나. 쓰레기매립으로 고통받는 서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라!

2017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박삼숙 의원

발 의 자 박삼숙 의원, 전재운 의원, 이의상 의원, 최영숙 의원, 김윤순 의원, 문순석 의원, 박형렬 의원, 이용창 의원, 천성주 의원, 심우창 의원, 김용인 의원, 이종민 의원, 전옥자 의원, 최규술 의원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 매립지 정책과 관련하여 최종 합의하였다.

최종 합의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에 대한 선제적 이행사항으로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양도,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 등 4가지를 약속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천시민과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민의 고통을 치유한다며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이행은 2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테



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던 환경부는 정작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추진에 비협조적이다.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친환경 복합테마파크와 복합쇼핑몰로 구성된 글로벌 환경관광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

안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지역에 350만명의 고용창출과 6조4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4자협의체에서 단계적으로 인천시에 넘기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부지 약1천587만㎡(약480만평)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소유한 267만㎡부지에 대한 조기 이양이 절실하다.

그러나 테마파크 조성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환경부는 인천시에 ‘폐기물 전처리시설’설치 후 부지 양도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폐기물 전처리시설은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건설 폐기물 선별장이며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이용시 매립량이 줄어드는 반면 그 만큼 매립지 사용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매립지 영구화 선언에 가까운 것이다. 게다가 인천에

는 이미 청라 자원화시설, 송도 자원화시설이 가동 중에 있다. 더 이상 소각시설이 인천시 서구에 설치되는 것을 절대 허용 할 수 없다.

지난 8월 25일에 인천시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회의를 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관 문제보다 다른 안건을 우선으로 회의를 하였는데 회의를 개최한 이후 주민에게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 4자 협의체의 이행사항에 대한 순조로운 실천보다는 조건부 이행이라는 형식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수도권매립지 소유 부지에 대해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후 토지 양도라는 조건을 내세운 환경부는 조건을 철회하고 4자협의체는 당초 합의한 이행사항을 원안대로 적극 이행하여 줄 것을 우리 인천시 서구의회는 강력히 성토했다.

하다못해 매립지 소유권의 인천시 양도를 서두르지 않더라도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환경부 소유 부지에 대해 사용 동의라도 해줘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시 그동안 쓰레기로 환경 고통을 받아온 피해 지역 주민들을 최우선 고려한다던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조금이나마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 인천시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환경부의 부지 소

유권을 인천시에 조속히 양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결의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 부지 소유권을 조속히 양도하라!

하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사용에 동의하라!

하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조건없이 원안대로 즉각 이행하라!

2017년 9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 조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최규술 의원

**발 의 자** 최규술 의원, 이의상 의원, 이종민 의원, 심우창 의원, 천성주 의원, 박삼숙 의원, 전재운 의원, 김윤순 의원, 김용인 의원, 박형렬 의원, 이용창 의원, 문순석 의원, 최영숙 의원, 전옥자 의원

지난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초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되어 1991년 4월 15일, 제1대 인천직할시 서구의회가 개원되었다. 그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전·현직 의원들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많은 시행



착오와 끊임없는 개선 과정을 통해 서구의회를 발전시키고 이어 왔으며 현재 제7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 이르렀다.

당초 의원 정수 20명으로 개원한 제1대 서구의회는 그간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및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제7대 서구의회 의원 정수는 16명이 되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확정된 인천지역 38개 선거구와 군·구의회 의원 정수 총 116명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부평구가 19명,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남동구·서구·남구가 각각 16명으로 정해진 것이다.

1988년 1월,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분구하면서 출발한 서구는 그동안 국내외교통의 요충지, 인천 최대의 산업단지 조성 및 청라국제도시 및 루원시티 개발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등 주

요 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서구에 유입되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8년, 15만 4천명으로 출발한 서구가 분구한지 27년만인 지난 2015년 3월에는 인천시 자치구에서는 3번째, 전국 자치구에서는 9번째로 인구 50만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17

년 8월말 기준 서구 인구는 512,229명으로 현재 5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는 각종 개발사업의 가속화로 27년만에 인구가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서구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자치구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구의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대의기관 및 대변자로서 서구의회 의원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관리하고 점검해야 할 지역의 현안사항은 급증하고 현장에서 청취해야 하는 구민의 목소리 또한 많아지고 있으나 주민의 대변자인 16명의 의원의 의정활동으로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역부족이다.

전국 자치구 중 50만명을 넘어선 서울시 송파구·강서구·노원구·강남구·관악구, 대구시 달서구, 인천시 부평구·남동구·서구의 의원수를 비교해 보면 인천시 남동구의회와 서구의

회 의원만 16명이고 다른 타구의회는 18명에서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인천지역의 평균 군·구의원 1인당 인구는 2만5천4백여명이지만 서구 의원의 1인당 인구수는 3만2천여명인 점을 비교해 볼 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구의 인구, 행정구역, 교통, 그밖에 조건 등을 고려한 현실정에 맞도록 의원 정수 확대와 공직선거법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불공정한 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구현 되도록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인구 50만을 돌파한 전국 9개 자치구의 기초의원 수와 비교하여 불공정한 서구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 하라!

하나. 서구의 인구와 행정구역, 교통 등 현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라!

하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고 관련 공직선거법 및 조례 등을 개정하라!

2017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한국지엠 철수 반대 및 노동자 일자리 보장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전옥자 의원

발의자 전옥자 의원, 박형렬 의원, 최규술 의원, 이의상 의원, 박삼숙 의원, 최영숙 의원, 김용인 의원, 전재운 의원, 김윤순 의원, 이용창 의원, 심우창 의원, 천성주 의원, 이종민 의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1962년 새나라 자동차가 인천시 부평구에 공장을 건설하여 근대적인 조립 생산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전까지 미군 군용차 폐품을 활용한 수공업 형태의 '재생자동차'뿐인 국내자동차산업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군산, 보령에 4개의 생산공장과 서구 원창동에 청라 주행시험장, 부평구 청천동에 2개의 기술연구소, 1개의 디자인센터를 두고 있다. 한국지엠은 협력사와 연관 산업까지 포함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인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이르는 것으

이후 새나라 자동차 부평 공장은 1966년 신진자동차로, 1976년 새한자동차로, 1983년 대우자동차로 바뀌면서 인천 자동차 산업의 계보가 이어졌으며 인천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본향이 되었다. 1990년대 중 후반 국내 자동차업계는 수출둔화 속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1999년 대우자동차는 대우그룹이 부도사태를 겪으며 지난 2002년 미국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에 인수되어 지금의 한국지엠에 이르게 되었다.

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인천시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직접 고용한 인력만 1만여명이며 인천지역내 1차 협력업체가 고용한 인원은 2만 6천명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자동차 산업의 무궁한 발전으로 2013년 기준 한국 자동차 생산량 452만대로서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으며 자동차 생산의 중심에서 있는 인천시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지엠이 가동중인 국내 4개 공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생산차량 라인이 많은 곳이며 1·2차 협력업체를 비롯한 기업 500여 곳과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어 인천 시민의 일자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업인 한국지엠은 부평, 창원,

이렇게 국가적·지역적으로 중요한 경제적인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인천시의 앵커 기업인 한국지엠이 최근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의 기간만료 도래로 인하여 '한국지엠 철수설'에 휩싸이며 인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글로벌지엠과 산업은행이 추가 협약한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에 따라 산업은행 보유지분 17.02%로 특별결의 거부권이 가능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2017년 10월 16일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GM 이사회 의결안 거부권인 비토권은 소멸되고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한다면 한국지엠의 철수까지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이 철수된다면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인천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한 이 시급한 상황에 우리 서구민을 비롯한 인천시민,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노동자 모두 한국지엠의 철수설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여야 한다.

30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한국지엠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글로벌지엠에 대한 정부의 견제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외국계기업인 글로벌지엠의 안정적인 기업운동을 위한 지원 및 제도가 필요하다. 산업은행은 글로벌지엠과 재협약을 추진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지엠 자체적으로도 혁신을 통한 생존전략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수십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의 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글로벌지엠과 한국지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국민이며 인천시의 구성원인 우리 서구도 한국지엠 철수설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인천지역 경제와 인천시민, 우리 서구민의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한국지엠의 철수설로 인한 인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구민을 대표하는 인천시 서구의회는 한국지엠 철수를 강력히 반대하고 30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산업은행이 글로벌지엠과 합의한 'GM대우 장기발전 기본합의서'협약 만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산업은행은 한국지엠 보유지분을 유지하고 글로벌지엠과 '거부권(비토권) 유지'를 위한 새 협약을 체결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지엠 30만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라!

하나. 글로벌지엠은 한국지엠이 단순 하청 생산기지가 아니라 토착기업으로 안정화될 장기적 발전전망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

2017년 10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 제2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자** 전옥자 의원

**발 의 자** 전옥자 의원, 전재운 의원, 천성주 의원, 김윤순 의원, 최규술 의원, 이의상 의원, 심우창 의원, 김용인 의원, 최영숙 의원, 이용창 의원, 이종민 의원, 박형렬 의원, 박삼숙 의원

서구국민체육센터는 2009년 1월 6일 개관되어 그 동안 체육 시설에 소외되었던 서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서구 인구는 2015년 3월 6일 인천 자치구 중 3번째 및 전국 자치구 중 9번째로 50만 명을 돌파한 이래 지금도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천 육지면적의 약 34%에 이르는 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검단지역의 경우 신도시개발 체육시설 용도부지 지정이 게이트볼장 1개소 507㎡ 밖에 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검단지역의 총 인구는 약 16만 명으로 서구 전체 인구 중 약 31.8%가 검단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검단신도시 개발을 통해 2023년까지 검단지역에만 약 18만 3천명이 추가 입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서구국민체육센터는 검암동에 위치하고 있어 검단 주민들이 이용하기엔 거리상 제약이 있으며, 그 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검단 복지회관이 유일하지만 체육시설로 특화된 시설이 아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검단지역주민의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 수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드림파크수영장과 승마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예산 부족의 이유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언론보도에서는 드림파크수영장이 민간 위탁을 통해 주민체육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지만 검단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정이다.

따라서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 각종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환경피해를 감내하며 생활해 왔던 서구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드림파크수영장과 승마장을 활용한 제2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제 스포츠는 더 이상 전문 운동선수 및 특정인을 위한 운동이 아니며, 건강을 위한 삶의 일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기 위해 현대인은 누구나 한 가지 운동을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스포츠관련 동호회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이야말로 말로 구민의 건강과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고통 받아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서구 내 열악한 체육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에 제2서구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라.

하나, 쓰레기매립으로 고통 받는 서구민을 위하여 드림파크수영장과 승마장을 조속히 개방하라.

2017년 9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제2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안심사결과 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담당부서)	발의자	심사결과
1	2387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재 무 과)	서구청장	원안가결
2	2388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재 무 과)	"	원안가결
3	2389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자 원 순 환 과)	"	원안가결
4	2386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과)	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5	2390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생 활 보 장 과)	서구청장	수정가결
6	2391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주 차 관 리 과)	"	수정가결

제21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안심사결과 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3건, 채택 1건, 수정가결 2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담당부서)	발의자	심사결과
1	239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 획 예 산 실)	서구청장	원안가결
2	2394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 획 예 산 실)	"	수정가결
3	2395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총 무 과)	"	원안가결
4	2396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세 무 1 과)	"	수정가결
5	2397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토 지 정 보 과)	"	수정가결
6	2398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과)	최규술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7	2399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촉구 결의안	본 회 의 (의 회 사 무 국)	천성주 의원 대표발의	채택
8	2400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전구간 동시 착공 촉구를 위한 결의안	본 회 의 (의 회 사 무 국)	이한종 의원 대표발의	채택
9	2401	언론부정정보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 회 의 (의 회 사 무 국)	이의상 의원 대표발의	채택

제21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안심사결과 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3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담당부서)	발의자	심사결과
1	240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사 무 국)	전옥자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2	2423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사 무 국)	이용창 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3	2407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 획 예 산 실)	서구청장	수정가결
4	2408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 획 예 산 실)	"	원안가결
5	2409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 획 예 산 실)	"	원안가결
6	2410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총 무 과)	"	원안가결
7	2411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재 무 과)	"	원안가결
8	2412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일자리지원과)	"	원안가결
9	2413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환 경 보 전 과)	"	원안가결
10	2419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 (재 무 과)	"	원안가결
11	2422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출연 동의안	기획총무위원회 (기 획 예 산 실)	"	원안가결
12	2415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과)	"	원안가결
13	2414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과)	"	수정가결
14	2420	2017년도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복지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과)	"	원안가결
15	2421	제2청사 서구문화재단 사무실 무상사용 동의안	복지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과)	"	원안가결
16	2416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	수정가결
17	2417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 획 예 산 실)	"	원안가결
18	2418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 무 과)	"	원안가결
19	2424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촉구 건의안	본 회 의	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채택

제21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안심사결과 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3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담당부서)	발의자	심사결과
1	2426	환경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원안가결
2	2424	인천시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도계~마전)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이의상 의원 대표발의	채택
3	2427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천성주 의원 대표발의	채택



제21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안심사결과 목록

심사결과 : 원안가결 9건 , 찬성의견 1건, 수정가결 1건, 소명 1건					
연번	의안번호	부의안건명	소관위원회(담당부서)	발의자	심사결과
1	2432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서구청장	수정가결
2	243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의 회 사 무 국)	전옥자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3	2430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총무위원회 (기 업 지 원 과)	서구청장	원안가결
4	2429	인천광역시 서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보 건 행 정 과)	김윤순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5	2431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도시위원회 (희 망 복 지 과)	서구청장	원안가결
6	243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제시의 건	복지도시위원회 (도 시 개 발 과)	"	찬성의견
7	24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서구의회 해제권고에 대한 소명의 건	복지도시위원회 (도 시 개 발 과)	"	소명
8	2439	검단일반산업단지 소방서 건립 촉구 결의안	본 회 의	이의상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9	2442	인천 서북부지역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 촉구 결의안	본 회 의	김윤순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10	2436	어린이집 사건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문순석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11	2440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본 회 의	박삼숙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12	2441	제2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본 회 의	전옥자의원 대표발의	원안가결



## 서구의회 2017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서구의회는 2월 7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황규철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접견하고 적십자 특별회비 50만원을 전달했다.

심우창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적십자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슈바이처 박사가 말했듯이, 대한적십자사는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재난과 사고현장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년소녀가장·독

거노인·장애인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폭넓은 복지사업을 전개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재민 구호활동,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많은 구민들이 2017년도에도 적십자 회비모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구의회 2월 27일부터 11일간 임시회 열려



서구의회 제215회 임시회가 지난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27일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윤순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에너지 등 4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 이익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도발 규

탄 결의안’을 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표했다.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3월 7일과 8일 양일간은 조례심사와 지역 내 주요시설 중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검암도서관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3월 9일은 제2차 본회의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와 검암도서관 공사현장 방문

서구의회가 제215회 임시회 중 서구민의 환경 및 문화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와 검암도서관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구의원들은 하루 420톤의 생활폐기물과 하루 100톤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청라사업소에서 현황 설명을 듣고 중앙제어실, 크레인실, 음식물 처리시설을 순차적으로 견학했다.

이후 5월 개관 예정인 검암도서관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구민감사 관과의 간담회 개최

서구의회는 지난 2일 서구의회 의장실에서 구민감사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민감사관은 서구 감사행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한 감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15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감사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전문분야 자문,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제보·건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심우창 의장은 “구민감사관은 구정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민감사관의 활동성과를 보고받고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등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서구의회, 의정연수기간 중 독도방문 결의문 낭독 및 위문품 전달



서구의회는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2017년 서구의회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울릉도·독도의 역사 및 문화탐방과 함께 울릉군의회와의 의정교류 및 협력방안을 주제로 추진했다.

연수일정 중 독도를 방문한 서구의원들은 제21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도발 규탄 결의문”을 직접 낭독

하며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일본의 역사왜곡을 규탄했다.

또한 독도를 지키고 있는 독도 경비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한 의원들은 이어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위해 울릉군의회를 방문했다.

## 부평구의회·서구의회,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방문



서구의회 심우창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의회운영위원장 박삼숙, 기획총무위원장 이의상, 복지도시위원장 최규술)은 3월 24일 부평구의회 임지훈 의장과 서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는 50명의 장애인이 임가공 작업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등을 배우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제작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5종)를 부평구에서 구입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은 현황설명을 들은 후 직접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담당자와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 서구의회 6월 8일부터 15일간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서구의회 제217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됐다. 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삼숙 의원과 최규술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이 있었다. 박 의원은 “검암동 꽃피길과 검암동 42번지 일대의 약 700m 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해 왔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이 돼 검암2지구 꽃피마을을 고립지역으로 만들었다”며 “작은 언덕으로 된 농로길을 도로로 연결해 검암동 주민들의 교통 고립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서구청 제2부지에 연희동지역 내 뿔뿔이 흩어진 공공기관을 한 곳에 유치하고 백화점과 음식점 등을 입점시키는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옥자 위원장의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승인건, 김윤순 위원장의 향토유물 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건, 이의상 위원장의 윤리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가 각각 진행됐다.

이어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경인아라뱃길과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 등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진행됐으며, 22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6개월여 활동 마감



서구의회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가 6개월여의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전옥자 위원장은 제217회 정례회를 통해 지난해 11월 14일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후 지난 5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위원회는 서구 소유의 공유재산 유지관리와 보존이 적정한지 살피고 허가, 대부 및 매각 시 사용수의 처분이 적정한지 조사해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

고 말했다.

이어 “공유재산의 관리와 취득내용을 살펴보고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등 방안을 모색하고 사용자 내용보다 초과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시급한 민원 처리에 급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취업명문 특성화고, 인천세무고!! 검단에서 활기찬 재도약

인천세무고등학교가 6월 21일자로 서구 당하동 할메산 자락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고 이전 개교식을 가졌다. 인천세무고는 지난해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완정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통학길이 인천의 그 어느 곳보다도 편리해졌다.

인천세무고는 1975년 부평구 십정동에서 개교해 2010년 세무분야 특성화고로 전환한 이후 높은 취업률과 우수한 취업의 질로, 고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학부모와 중학생들에게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서구에서 2017학년도 첫 신입생을 맞은 세무고는 3개 학과에 878명의 학생과 7명의 교직원이 생활하고 있으며, 3개동의 교사에 교내 곳곳마다 휴게시설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들을 설치했다.

이상대 교장은 “새로운 교정에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세무인재를 양성하는 매력적인 특성화고를 만들겠다는 교직원들의 열정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교식에 참석한 서구의회 의원들은 “세무고는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시설의 참 모델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고, 개교식 행사에 들어온 쌀 500kg을 학교재단과 검단지역아동센터 4곳을 연결시켜 기부토록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에 인천세무고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 서구의회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센터 방문



서구의회는 지난 제21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서해5도 수산물 복합문화 센터를 방문했다.

센터는 서구 정서진로 651 경인아라뱃길 검암역 부근에 위치한 곳으로 지난 6월 15일 개장한 바 있다.

센터에서는 백령도와 연평·소연평도, 대청·소청도 등 서해 5도에서 포획한 각종 수산물을 맛 볼 수 있으며, 판매하는 수산물은 웅진수협을 통해 공급된다.

의원들은 1층에 위치한 수산물 판매장에서 직접 자연산 수산물을 구입하여 시식도 하며, 센터 내 문화체험관과 홍보관, 전망대 등 시설을 둘러보았다.

심우창 의장은 모쪼록 이 센터가 활성화 되어 지역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양지초등학교 서구의회 견학



지난 7월 6일 인천양지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서구의회 견학 활동이 있었다.

이번 견학은 4학년 4개반 학생 80여명이 4명의 인솔교사와 함께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 살펴보기'란 주제로 서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아보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찾게 되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과 의회 곳곳을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의회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평소 의회에 대해 궁금해 하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질문을 펼쳤다.

이 날 학생들을 인솔한 맹병호 교사는 학생들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를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만족해 했다.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견학 활동을 활성화 시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민과 가깝게 다가가는 서구의회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 화물공영주차장 및 엠파크 현장 방문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서구 관내에 위치한 화물공영주차장과 엠파크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실태에 대해 시찰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등 구의회 의원 7명과 전문위원, 관련 집행부 등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현장 방문을 통해 의원들은 영업용 화물차의 주차차로 인해 고통 받는 구민들의 민원해소와 화물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화물공영주차장 2개소의 현장을 둘러보며 현재 주차장의 운영실태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또한 지난 2011년에 오픈하여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로 성장한 엠파크를 방문하여 중고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과정 및 시설에 대한 설명과 사업장 현장 시찰을 하고, 차량등록민원 편의를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동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살펴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의원들은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사항 등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제218회 임시회서 결의안 채택 등 안건 처리

서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18회 임시회를 열고 결의안 채택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이용창 의원이 당선되었다.

아울러 이의상 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천시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도계~마전)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천성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서구청 특별회계 편성 촉구 결의안을 서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했다.

또한, 최영숙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철재 휨스에 부착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구민의 교통사고 위험 및 불편함이 있으니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임시회 결과와 관련하여 심우창 의장은 “지역의 민감한 현안에 있어서는 즉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앞으로도 서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된 이용창 의원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 수해지역 복구 활동 참여 및 격려금 전달

서구의회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가 복구 활동에 동참하면서 복구 작업에 나선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침수된 가정의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정리하고, 침수가 심한 가정의 배수를 돕는 한편, 파손·침하된 도로가 속히 복구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연일 현장을 지키며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심우창 의장은 갑작스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며, 하루속히 모든 것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구의회 의장단, 식품산업단지 '아이푸드파크' 현장 방문



서구의회 의장단은 지난 11일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에 26만㎡의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아이푸드파크 현장에 다녀왔다.

아이푸드파크는 인천 각 지역의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집단지화 하는 수도권 최초의 식품산업단지이며, 식품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장을 비롯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마련된다. 아이푸드파크는 오는 10월 공사에 착수, 201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의장단은 인천식품단지개발(주) 관계자로부터 진행사항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 1만 6천여명의 고용창출과 약 8,9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큰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격려

서구의회는 지난 23일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사드 배치, 국제적 테러 위협 등 남북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천과 같은 마음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촉구 관련기관 방문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8월 23일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서구의 특별 회계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8월 31일에는 인천시장을 만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촉구와 검단시도시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체육시설 설치, 루원시티 공공용지(학교용지, 주차장) 부지 확보, 인구 50만 돌파에 따른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서북부지역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등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 및 편익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서구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인천시로 등기돼 있는 서구청사의 소유권을 우리구로 이전하여 지속적인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공간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수영장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 전까지 지역사회와 영향권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승마장도 생활체육 및 공공복지시설로 제공될 예정으로 현재 주변지역 소회계층, 청소년 대상 재활 및 힐링승마를 위해 '승마힐링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제2, 제3매립장 진행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개선, 폐기물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미지 개선 등을 기대하며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진행 사항도 청취했다.

심우창 의장은 모쪼록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이 조속히 개선되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서구의회 서부소방서 방문 격려 및 검단 현안사항 전달



서구의회는 지난 8월 16일 서부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의회는 소방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돌며 악수를 나누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부소방서장과의 대화에서, 검단·오류산업단지 조성 및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검단(오류)지역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과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기계 및 화학물질 등 화재 취약 대상물 증가에 따른 화재 대비 전문소방서가 조속히 건립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2017. 01. 17.

검단5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2017. 02. 07.

2017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2017. 02. 23.

향토유물 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부여 현장방문



2017. 03. 02.

시 대곡동 방역초소 방문



2017. 03. 06.

향토유물 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청소년수련관 방문



2017. 03. 09.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방문



2017. 03. 17.

안전모니터봉사단 서구지회장 이·취임식



2017. 03. 22.

가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보고회



2017. 03. 23.

공유재산특위 서무정 견학



2017. 03. 23.

공유재산특위, 낙청자 박물관견학



2017. 03. 24.

서구의회-부평구의회,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방문



2017. 03. 28.

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의정연수(독도)



2017. 03. 29.

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의정연수(울릉군 의회 방문)



2017. 03. 31.

서구자원봉사센터 시니어자원봉사대학 개강식



2017. 04. 01

제26회 검단주민의 날 기념식



2017. 04. 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서구협의회 지역사회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7. 04. 19.

2016 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 위촉장 전달식



2017. 04. 20.

사단법인 인천가구발전협의회 총회 및 체육대회



2017. 04. 30.

제41회 서곶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2017. 05. 01.

제12회 검단5개 향우회 합동체육대회



2017. 05. 01.

노동조합 창립 제14주년 소통과 화합 한마당 대동제



2017. 05. 11.

5월 가정의날 맞이 참살이 뉴타운 검사랑 제1회 전통혼례식



2017. 05. 12.

2017 서구주민자치협의회 단합대회



2017. 05. 13.

제25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배 테니스대회



**2017. 05. 14.**  
2017 서구청장기 축구대회



**2017. 05. 16.**  
2017년 제3회 서구육상협회장배 건강달리기대회



**2017. 05. 21.**  
2017년 검단탑종합병원장기 축구대회



**2017. 05. 21.**  
제10회 백석초등학교 총동문 기별 체육대회



**2017. 05. 23.**  
보훈회관 개관식



**2017. 05. 24.**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협회 발대식



2017. 05. 27.  
연희동 장미축제



2017. 05. 30.  
2017년 제6회 인천서구골프협회장배 골프대회



2017. 06. 04.  
2017 청라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



2017. 06. 08.  
제21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06. 0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06. 09.  
당하호 공원 내 시설물정비공사현장 방문



2017. 06. 09.  
2017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7. 06. 09.  
2017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2017. 06. 09.  
2017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2017. 06. 20.  
서인천농협 영농자재센터 개관식



2017. 06. 22.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2017. 06. 22.  
경인고속도로특위



2017. 07. 06.

인천양지초등학교 서구의회 견학



2017. 07. 13.

환경조사특별위원회



2017. 07. 13.

기획총무위원회 현장 방문(M-파크)



2017. 07. 18.

제218회 인천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7. 07. 21.

제7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 사진 촬영



2017. 07. 21.

의정동우회 하계 워크숍(영종도)



2017. 07. 24.

검단5동 적십자봉사회 출범식



2017. 07. 27.

수해 복구 지역 찾아 위문, 격려금 전달(연희동)



2017. 07. 27.

수해 복구 지역 찾아 위문, 격려금 전달(석남2동)



2017. 07. 27.

수해 복구 지역 찾아 위문, 격려금 전달(가좌1동)



2017. 07. 27.

수해 복구 지역 찾아 위문, 격려금 전달 (안전총괄실)



2017. 08. 20.

제9회 서구청장배 검도대회



**2017. 08. 25.**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대학교 중고 PC 기증



**2017. 08. 29.**  
2017. 제26회 서구청장배 게이트볼 대회



**2017. 09. 04.**  
2017년 태권도의 날 기념행사



**2017. 09. 04.**  
2017년도 제34기 서구문화대학 입학식



**2017. 09. 13.**  
제2차 어린이집 사건 사고 방지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2017. 09. 14.**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 제20기 여성대학 입학식

## 의회 방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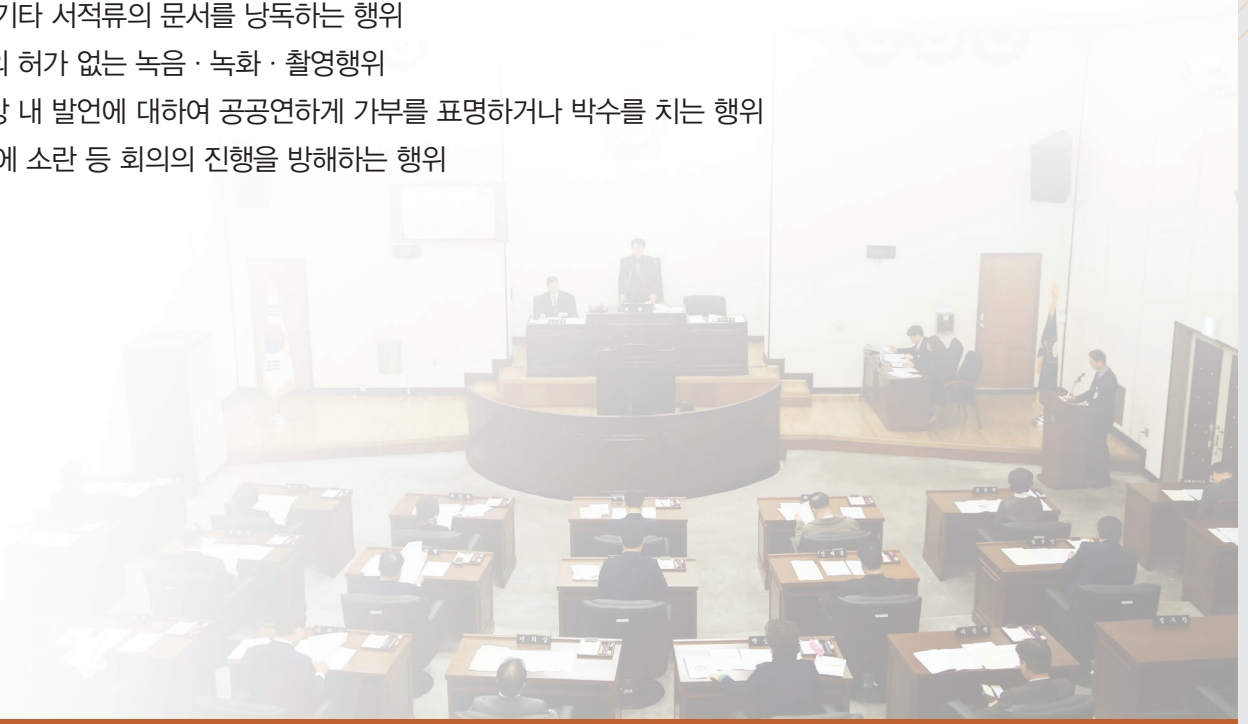
### 방청 안내

- ◎ 방청절차 : 방청신청(신청서 작성)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 ◎ 방청신청
  - 일반신청【개인】: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 단체신청【10인 이상】: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전화 문의 후,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 ◎ 방청문의 : 서구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2)560-5852

###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 신문 기타 서적류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원 및 진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 원	진 정
정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이 문서로 희망사항이나 바라는 바를 진술하는 것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의원에게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
성립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을 소개하는 의회위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li> <li>-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li> <li>-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작성·첨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정서에 진정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접수</li> </ul>
불수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li> <li>-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li> <li>-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li> <li>- 법령에 위배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li> <li>- 국의원수와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li> <li>-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li> <li>-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li> <li>-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li> </ul>

※ 기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문의는 서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60-5858)

# 너와 나 그리고 계절

윤슬 박영옥

당신의 미소는 너무 쓸쓸해  
차마 다가설 수가 없구려  
드레스는 울긋불긋 아름다우나  
연분홍빛도 아니요 연두빛도 아니요  
검붉은 피부에 회색코트  
밤색 모자를 쓰고 오신님이시여

수고한 날들의 무거운 흔적  
이제 다 내려놓으시구려  
은빛화관 머리위에 반짝이는 날  
하얀 수의 만견곤히 갈아입혀  
차가운 땅 위에 잠들게 하소서  
하늘은 더 이상의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윤슬 박영옥

- 인천교구 가톨릭 수기공모 (1999년)
- 서구문화회관 미술 개인전 (2007년)
- 문학공간 시 부문 신인상 등단 (2014년)
- 인천서구문화예술인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청라문학 운영위원
- 시집 : 『가을 찾잔』, 『그대에게 다시 쓰는 가을편지』 출간



## 인천광역시서구의회

[www.seo.incheon.kr/family](http://www.seo.incheon.kr/family)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Tel. 032-560-5850~60

Fax. 032-560-2797